

## 세계일보

---

# '노크 귀순'에 뚫린 그 장소로 또 내려왔다

北, 민간인 귀순... 경계 구멍 논란  
14시간 수색작전 끝 신병 확보  
철책 일부 훼손 ... 감시 센서 먹통

첫 포착부터 36시간 만에 상황종료  
軍 투입 없어 초동조치 미흡 지적  
"경계망 뚫린 것 아니냐" 비판도

입력 2020-11-04 19:43:18, 수정 2020-11-04 23:05:08

---



4일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북한 남성 1명이 귀순했다. 철책에 설치된 감시 센서는 '먹통'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강원도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상인원 1명을 추적하여 오전 9시5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귀순한 북한 남성은 전날인 3일 오후 7시25분쯤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남측 GOP(일반전초) 2중 철책을 넘어서 월남했다. 이후 군은 해당 부대에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를 발령하고 수색작전을 벌였다. 군이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 만이다.

위치상으로는 남측 GOP로부터 1.5km 남쪽 지점으로, 민가 주변은 아니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 발견 당시 비무장 상태였던 이 남성은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자신이 군인이 아닌 주민이며 귀순 의사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남성의 월남 과정에서 2중 철책 일부가 훼손됐다. 이 장면은 군 열상감시장비(TOD)에 실시간 포착됐다. 하지만 당시 해당 철책의 광망(철조망 감시센서)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전방인 휴전선

일대 GOP에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사람이나 동물이 철책에 닿으면 센서가 울리며 5분 대기 조가 즉각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북한 남성 1명이 철책을 넘어와 동부전선에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가 내려지는 등 수색작전이 전개된 4일 병력을 실은 트럭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군은 이 남성이 월남 하루 전인 지난 2일 오후 10시14분과 10시22분쯤 등 두 차례에 걸쳐 MDL 선상의 북측 지역을 배회하는 장면을 TOD를 통해 파악했으나 3일 저녁 철책을 넘는 장면을 포착하기까지 약 21시간 동안 어떤 움직임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동부전선의 경우 아직 수풀이 우거진 상태고, 지형에 따라 사각지대가 다소 있어 지속적으로 관측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서 “(신병 확보) 작전이 끝날 때까지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했던 부분을 계속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작년 7월 31일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임진강을 통해 귀순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발생했다. 2018년 12월 1일에는 북한군 1명이 동부전선 MDL을 넘어 귀순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 2017년 11월 13일에는 북한군 병사 오청성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다.

#### ◆철조망 훼손하고 월남... ‘진돗개’ 발령에도 DMZ 휘젓고 다녀

4일 강원도 동부지역 최전방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의 귀순을 두고 군의 전방 경계망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방의 모든 GOP(일반전초) 철책에 설치된 과학화경계감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강화도에서 발생한 ‘탈북자 월북 사건’으로 질타를 받은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귀순 장소는 2012년 ‘노크 귀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강원도 고성이다. 늘 경계 문제로 시달려온 곳이다.



◆초동조치 허점 드러내 또 경계 구멍?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전방 철책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손사래쳤다. 하지만 북측 남성의 이동 동선을 최초 포착한 지난 2일 밤부터 3일 저녁 철책 월선, 4일 오전 신병확보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군 초동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시된다.

월남한 북한 남성은 북한 군인은 아니며 민간인 남성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 남성은 3일 오후 7시25분 군사분계선(MDL) 2중철책을 넘어 월남했다. 군 당국은 해당 지역을 수색한 결과, 남측 윤희철조망 상단부가 일부 눌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남성이 철조망을 훼손하고 월남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군 초소의 감시와 우리 군 2중철책을 넘어올 정도면 이곳 지형을 잘 아는 북한군 출신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철책이 훼손될 때까지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군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책 인근에서 초동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 동부전선 귀순자 발생 현황



<b>11월2일 오후 10시14분</b>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에서 신원미상 남성 비무장지대(DMZ)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포착
<b>3일 오후 7시쯤</b>	신원미상 남성, 전방 철책선 인근에 도착한 모습 군 열영상 감시장비(TOD)로 포착
<b>3일 오후 7시25분</b>	신원미상 남성, 군사분계선(MDL) 2중철책을 넘어 월남
<b>3일 밤</b>	군, '진돗개 하나' 발령 수색작전 펼쳐
<b>4일 오전 9시50분쯤</b>	고성 민통선 내에서 북에서 내려온 민간인 신병 확보

특히 군이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를 격상한 시점을 놓고서도 이러한 초동조치 미흡을 만회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은 지난 2일 밤 MDL에서 북한 남성의 이동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다음날인 3일 밤늦게 진돗개를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 단계인 '하나'로 격상, 대규모 수색작전을 벌였다.

이미 북한 남성은 GOP 철책으로부터 1.5km 남쪽까지 이동해 있었던 때였다.

진돗개는 대간첩 침투작전 경계태세를 뜻하는 것으로, 국지적 도발이나 무장공비 침투, 무장탈영병이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평상시에는 '진돗개 셋'을 유지하지만 적 부대 및 요원의 침투 징후가 농후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진돗개 둘', 침투상황이 발생하고 대간첩 작전이 전개될 때는 '진돗개 하나'로 격상된다. 상황이 급박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이 북한 남성이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 30분 만에 기동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이 남성이 먼저 자수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군은 기동수색팀이 먼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남성 1명이 철책을 넘어와 동부전선에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가 내려지는 등 수색작전이 전개된 4일 고성지역에서 병력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먹통’ 된 과학화감시장비

북한 남성이 넘은 철책에는 광망 센서와 CC(폐쇄회로)TV로 구성된 과학화 경계 감시장비가 설치돼 있다.

철책에 사람이나 동물이 접촉하면 센서가 울리고 GOP 부대 감시통제소로 즉각 전달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센서가 울리지 않았다. 군은 장비 고장 여부 등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전방 모든 GOP에는 이러한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가 설치돼 있다. 군 관계자는 “너구리 정도의 동물이 접촉해도 경보음이 울리는데 센서 이상을 방치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광망 센서는 기온 차이 또는 동물 접촉 등의 원인으로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남성이 철책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과학화 감시장비의 경보음이 울리고 5분대기조가 즉각 출동했다면 철책 인근에서의 신병 확보는 문제될 게 없었다. 과학화 경계 감시장비에 군이 또 한 번 당한 꼴이다.

합참은 이번 귀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계부대에 전비태세검열단을 내려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통해 군의 경계감시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